

“내년 대내외 여건 더 나빠질 수도”

홍남기, 민간 소통·정책역량 강화·부처간 칸막이 해소 강조 김동연 전 부총리 감사 표해... 뇌출혈 직원 쾌유 빌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 패러다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경제불안·이해관계 조정·정책성과 불신'의 3대 벽을 허물고, 민간 소통 강화와 부처 간 칸막이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제 공직 인생의 대부분이 녹아있는 고향 같은 곳”이라면서 “솔직히 여러분과의 재회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앞선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고 운을 폈다.

그는 “국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무는 명료하다. 소득, 고용, 분배 개선 등 경제활력을 확 높여 달라, 과학적인 삶의 보다 나아지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걷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주신 책무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의 기초가 잘 놓여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력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를 언급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창 검토 중인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그간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마주했던 3대 벽을 뛰어넘자고 했다. 그가 말하는 3대 벽은 경제불안 심리,

이해관계 조정, 정책성과 불신이다.

홍 부총리는 “이제는 기업과 시장이 강한 편입질을 해야 할 때다. 하루빨리 민간이 경제하려는 동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공정한 룰(rule) 아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도록 해 나가자. 이를 위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시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 민간과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는 “곳곳에 위치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제주체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대화, 타협, 양보, 조율에 의한 사회적 빅딜을 통해 해결하겠다.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겠다. 핵심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그간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 우리는 이제 성과로 말하고 성과로 승부해야 한다”며 “당위성에 매몰된 정책,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은 그만 하자. 프레임에 갇힌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국민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에 집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기능으로 부족하거나 민간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은 그 속도와 강도를 더 높이고,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은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고민을 통해 실력·정책 역량을 높이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주력하고자도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경제팀을 이끄는 총괄부처”라며 “여타 경제부처를 선도하고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정책역량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치열한 고민이 확 일어나야 한다. 치열한 고민을 달리 표현하면 혁신적 사고이고, 이것 만이 한 차원 높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일할 때 말은 정책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 국가 경제를 위한 정책에 있어 실각간, 부처간 칸막이는 보이지 않는 독소”라며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집단지성은 필요한 것만큼 기재부 내 실각간 칸막이부터 걷어내고 나아가 경제부처간 칸막이도 없애 윈윈(one team)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기 경제팀에 대한 감사의 뜻도 잊지 않았다.

국회 예산안 업무를 수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김동진 서기관의 사례를 들며 ‘워라밸’(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삶)도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불필요한 일과 회의의 시간을 줄이고 서면·영상 보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새 정부의 새 경제 패러다임을 잘 착안 시키고 그동안 우리 경제를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해온 김동연 전 부총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호흡 맞춰 함께 전력투구해온 여러분(기재부 직원)의 노고도 격려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된 격무로 피로가 많이 쌓여 있다는 점을 잘 안다. 국회 예산심의 대응 과정에서 쓰러진 동료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조속히 회복해 우리 곁에 돌아오길 기원한다”며 “일을 할 때는 집중해서 하되 쉬어야 할 때는 확실하게 쉬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일함에 있어 생산성을 높이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호흡 맞춰 함께 전력투구해온 여러분(기재부 직원)의 노고도 격려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된 격무로 피로가 많이 쌓여 있다는 점을 잘 안다. 국회 예산심의 대응 과정에서 쓰러진 동료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조속히 회복해 우리 곁에 돌아오길 기원한다”며 “일을 할 때는 집중해서 하되 쉬어야 할 때는 확실하게 쉬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일함에 있어 생산성을 높이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호흡 맞춰 함께 전력투구해온 여러분(기재부 직원)의 노고도 격려한다”고 했다.

전개공, 내부 청렴도 ‘2년연속 1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전국 8위 달성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일 밝혔다.

전북개발공사는 금번 청렴도 조사에서 외부청렴도 8.62점, 내부청렴도 8.72점을 득점, 종합청렴도 8.64점을 획득하여 전국 47개 지방공사·공단 중 종합청렴도 2등급(8위)을 달성했다. 특히, 내부 청렴도 부분에서는 2년연속 전국에서 ‘유일한 1등급’을 달성으로 공사 내부 청렴 문화, 업무 청렴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렴도 조사는 공사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을 대상,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청렴문화 등에 대해 설문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신뢰도 제해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또한, 전북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7년도 대비 2.82점 향상된 86.94점을 득점하는 등 각종 외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우수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임직원들의 청렴한 업무태도의 좋은 결과가 나타난 매우 기쁘다”며, “끊임없이 노력하여 도민에게 보답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우뚝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유통 전문가들, 채소·과일 ‘당도·편의성’ 선호

농산물 유통 종사자들은 당도가 높으면서 편의성을 갖춘 채소·과일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농진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사과·배·포도·참다래 등 42개 품목 118품종의 시장성 평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최근 3년간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유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외부 품질의 정량조사(블라인드 시험)와 상품성에 대한 정성조사로 나눠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 전문가들은 당도가 높으면서 경도(단단한 정도)가 알맞은 제품을 선호했다.

유통 측면에서는 품질이 균일하면서 일정 물량이 지속 공급되는 품목을 높게 평가했다. 중소형 크기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면 상품

성이 더 높다고 봤다.

품목별로는 포도는 열매터짐(열과) 유무, 딸기는 색깔, 멜론과 감귤은 꼭지 상태, 배와 참다래는 식감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했다.

품질별로는 농진청이 개발한 여름사과 ‘썬머킹’은 ‘아오리’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일본 품종 ‘쓰가루’보다 과즙과 당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 결과 지난해 66t, 올해는 291.8t 판매에 성공했다.

당도가 높고 색이 잘 들었는 호형을 받았던 추석용 사과 ‘아리수’ 역시 소매점과 계약 거래를 연결해 지난해 36.9t, 올해에는 56.4t을 팔았다.

단맛이 강한 녹색 배 신품종인 ‘그린시스’는 1kg당 4000원에 거래돼 신고배(1kg당 2400원)보다 66.7% 높은 가격을 받았다. /김영태 기자

골드만삭스 “연준, 내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50% 미만”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OMC)가 내년 3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50%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연준이 올해 12월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 3월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90일 간의 무역 휴전이 3월 초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FOMC가) 시장 상황이 불안한 기간과 겹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발표하는 점도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금까지 2019년 3차례의 금리 인

상을 제시해 왔다.

하치우스는 “3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2019년 점도표 중간값이 3회에서 2회로 낮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 숫자가 3회 상승으로 유지된다면 3월 인상 확률은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2019년에도 실업을 하라락과 임금·물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 결국 연준이 계속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치우스는 “우리는 폭풍이 지나갈 것이고, 지금까지보다 더 구불구불한(tortuous) 길이었지만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뉴시스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이불 나눔’ 전달식

전북은행,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200여만원 상당 겨울이불 50채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석기)은 2018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이불 나눔’ 전달식을 했다. 이날 전달식은 질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에 이불을 지원하여 추운 겨울철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전북동부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 가정에 200여만원 상당, 순면 겨울이불 50여채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정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전북동부보훈지청을 통해 2014년부터 매년 방한복, 온열매트, 겨울이불 등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이웃사랑의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과 전북동부보훈지청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이불 나눔’ 전달식을 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